



# 남편의 바람, 아내의 바람

오재호/극작가 한국부부문화연구원장

“누가 먼저 바람을 피웠다는 것입니까?” 라고 다그치면 대뜸 남편의 대답은 “저 여잡니다” 아내 쪽은 “저 남자에요” 라고 거의 동시에 대답합니다.

이혼재판에서 이런 장면은 흔합니다. 하기가 바람은 남자 혼자 피우는 것도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남녀 50대 50입니다. 남자만 바람을 피운다는 개념은 애당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재판에서는 누가 먼저 바람을 피웠느냐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외도현장을 누가 먼저 잡았느냐가 칼자루를 쥐게 됩니다. 정말로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아내의 외도 문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도 놀라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통계수치가 있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1) 결혼 5년 후 64.7% (2)결혼 3년 후 21% (3)결혼 10년 후 13%순으로, 결혼 5년 후가 단연 으뜸입니다.

헌데 아내의 바람도 비슷합니다. (1)결혼 5년 후 48.7% (2)3년 후 20.4% (3)10년 후 19%로 나타납니다. 오히려 아내 쪽이 신혼 초와 결혼 10년이 넘으면 더 심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외도상태를 살펴봅시다. 남자의 경우에는 (1)기혼여성45% (2)과부 또는 이혼녀 24% (3)미혼여성14% (4)그리고 유흥업소 여성이 4.4%순이며 기혼여성이 단연 으뜸입니다.

여자 쪽도 비슷합니다. (1)기혼남성 65.7% (2)이혼남자가 17.5% (3)미혼남자가 7.3%순입니다. 이제 결론은 났습니다. 바람 상대는 미혼남성이나

미혼여성도 아니고 더욱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고쳐 잡아야 합니다. 사실은 기혼남자와 기혼여자가 바람의 주인공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피우는 게 아니라 가정을 갖고 있는 당신과 내가 주범입니다. 뉴욕 주립대학교 심리학교수 <마이클 즈보르스키>박사는 “현대인의 바람이란 병적인 나르시즘으로부터 출발하는 일종의 자아장애현상(自我障礙現象)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빨리 갖기를 원합니다. 너도나도 과도한 경쟁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부족합니다. 출세도 남보다 빨리 해야 합니다.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 것도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허전합니다.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심리상태가 자연스럽게 바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가정을 갖고 있는 남자나 여잡니다. 앞서 읽었던 형사정책연구소의 통계수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남편의, 아내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비법은 돈도 아니고, 성(性)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오로지 대화뿐입니다. 부부대화는 <듣기>부터 시작합니다. <듣기>란 상대 배우자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느낌>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컨대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부부대화에 대한 교육을 한번쯤은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부부대화야말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PPFK

